



제5과 나아만

부모님을 위한 안내 (가정활동을 위해서는 다이내믹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전도유망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병을 치유할 사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어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주 하찮고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이가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엘리사를 소개한 것일까요? 또 작은 아이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나아만은 얼마나 절박했던 것일까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갔으나 정작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살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권하자, 절박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씻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도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왕하 5:15).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북왕국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의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보이셨습니다. 나아만의 고백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 이외의 참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찮고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듯이, 이 과를 통해 자녀들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하주세요. 아울러 '하찮고 작은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듯이, 자녀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오늘의 활동 -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준비물: A4 종이, 가위, 펜

활동하기:

- ① A4 종이를 8조각으로 자르고, 2-3조각씩 나누어 가진다.
- ② 각 종이에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적는다.
- ③ 종이를 접어 중앙에 놓는다.
- ④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후, 차례로 종이를 뽑아 읽고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한다.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일 경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눈다.
- ⑤ 다른 사람들은 해결 방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두 손으로 O, X를 그려 표시한다.
- ⑥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사람이 승리한다.

휴대품을 잃어버렸을 때	불이 났을 때
변화가 많았을 때	집에 머물 것이 없을 때
낯선 사람이 말걸었을 때	숙제를 잊어버렸을 때
가위기에 걸렸을 때	유리병을 깨뜨렸을 때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1.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렴.
2.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3. 하나님께 어려움을 말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야.)
4. 하나님이 네 어려움을 해결해주셨던 적이 있니? 요새 겪고 있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무엇이니?

* 믿음 나누기 | 부모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주셨던 경험에 대해 들려준다.

찬양과 감사하며 기도하기

♪ 함께 부를 찬송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